



금수강산

4

주체112(2023)
루계 제404호 월간



표지: 송화거리의 주인들

사진의 주인공들은 화창한 봄날 송화거리를 거니는 주민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자식의 손목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부부들도
그리고 유모차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을 보며 기뻐하는
아기어머니의 모습에도 행복이 넘쳐나고있다.

황정혁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10 || 수도 평양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다시 남김없이 떨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을 맞으며

14 ||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

17 || 투각무늬도자기꽃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8 || 합작은 불가능한가?

20 ||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어

22 || 그이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23 || 위민헌신의 나날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24 || 생산력을 부단히 높여나간다

26 || 명주실생산에서 련일 혁신

28 ||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

30 || 로동자대학생들

32 || 분석설비의 개발자들

34 ||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쳐나는 송화거리

38 || 고조되고있는 승마바람

42 || 종군생산의 공업화를 실현

43 || 고려주사약침료법을 연구확립한 녀박사

44 || 수석을 채취하는 사람들

고향소식

46 ||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48 || 봄의 훈향이 실어오는 추억

52 || 조선의 국견 풍산개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54 || 가야

력사인물

55 || 흥란파와 가요 《봉선화》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쳐고

56 || 소를 특별히 잘 그린 김식

59 || 중세의 이름난 녀성서예가들

민족의 향기

60 || 조선불고기와 그 가공법

조선의 명산

62 || 묘향산

력사이야기

68 || 8형제총각과 8선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활동으로 우리 당을 불패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해당 성원들로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의 토의사업목적에 대하여 밝히시고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행의 첫째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까운 년간에 농업생산을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토대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업발전에 부정적작용을 하는 내적요인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해소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농사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주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여 해당한 방책을 도출하며 올해 농사와 전망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닦기 위한 절실하고도 필수적인 과업과 방도적문제들을 다시금 명백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전원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본 전원회의가 농업발전의 전망을 확고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내각, 성, 중앙기관, 도, 시, 군급지도적 기관 일군들, 농업부문과 관계부문, 단위의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열어놓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문제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승인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2022년도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농촌발전전략실행의 첫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시정, 극복되어야 할 편향 및 교훈들이 다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지적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토론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이 서면토론을 제출하였다.

전원회의는 보고와 토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일어나가기 위한 구상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의 달성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므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역사적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농촌혁명강령은 사회주의농촌체제발표이후 변천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의 개편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과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백히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변모되는 농촌, 선진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결론은 현 단계의 투쟁에서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편시키는것을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다시금 제기하고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완벽하게 실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기본목적이

언급되고 주되는 농업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발전을 담보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우고 올해에 계획된 관개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현대성과 선진성을 부여하는데서 제일 절실하고 효과적인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며 농기계부문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사는 간석지개간과 경지면적을 늘이는것이다.

농업위원회와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이 맡은 역할을 책임적으로 하며 과학연구단위들을 첨단기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농업생산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시행방도들을 밝히었다.

전국적인 농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지도에서 편과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도, 시, 군의 지도기관들과 모든 농장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 결정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고 전국적인 판도에서 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았으며 이것은 농촌진흥의

세기적변혁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귀중한 발판으로, 밑천으로 된다.

결론에서는 올해에 농촌건설을 더욱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과 시, 군들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고 완강히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농촌발전의 방대한 전망목표를 달성하자면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농촌당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에 강력한 령도체계가 서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방략들이 집대성된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은 전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문제를 주요의정으로 취급하는 의도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부문과 단위들의 계획수행 과정에 이룩되고있는 긍정적인 변화들과 편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일단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경제부문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나타날수 있는 난점들을 예견하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면서 완강한 노력을 기울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조직력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당사업을 당정책집행으로 철저히 지향복종시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검증받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반영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나라의 재정토대와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은행사업을 개선하며 과학적인 국가금융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에서 제시하신 농촌발전방략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가일층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8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역사적인 결론의 기본사상에 따라 관련문제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한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의견들이 기탄없이 제기되었으며 진지한 토의과정을 거쳐 과학적인 대책안, 실현가능성이 철저히 검토된 실속있는 작전안들이 수립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생산과 경제건설의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들이 반영된 결정서초안을 최종심의하고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한 발전전망적인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문제도 결정서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대 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며 방조하는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원칙들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무겁게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들을 타개하는데서 투쟁의 기치, 전진의 기수가 되어 맡은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정신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백절불굴하는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와 전진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될것이다.

* * *

수도 평양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다시 남김없이 떨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주체112(2023)년 2월 25일



성스런 백두의 기상과 정신을 안고 수도건설의 중요전구에 달려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대원동무들!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이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받고 모여온 전국의 청년탄원자동무들!

온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씩씩한 기백과 용감성과 열정을 다 안고서 여기에 모여온 동무들의 모습을 보니 백배의 힘이 나고 커다란 용기가 솟습니다.

오늘 나는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천지개벽을 무조건 일으키고야말 열정과 투지와 자신심에 넘쳐있는 자랑스러운 청년대오의 기세를 직접 보고싶고 고무해주고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나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금지높은 폐지를 아로새기게 될 현대적인 새 거리건설의 의의깊은 착공을 동무들과 더불어 선포하게 된것이 더없이 기쁩니다.

이 자리에 서니 벌써 8년전 우리 당창건 일흔뫼를 앞둔 시기에 백두산기슭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새 발전소언제에 《영웅청년》이라는 글발을 크게 새기고 백두산이 낳은 청년투사들과 함께 준공을 경축하던 잊지 못할 그날이 선히 떠오릅니다.

뜨거운 청춘의 혈기로, 티없이 정갈하고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우리 위업을 옹위하는 신념의 역척성세를 높이 쌓아올리고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청춘기념비를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멸할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조선청년운동사에 금문자로 력력히 새겨졌습니다.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를 훌륭히 변모시키는 벽찬 투쟁과 북방산야의 철길을 개건하는 투쟁속에서 역세계 이어지고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료원의 불길마냥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청년건설자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고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떠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위대한 정신을 더욱 승화시키면 그 어떤 방대한 사업도 걸차게 해제낄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행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불같은 애국열의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관을 펼쳐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별도로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구역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 웅근 하나의 특색있는 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상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통채로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당의 의도는 우리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 전투장에서 조선청년고유의 영웅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더욱 힘있게 떨치며 혁명의 계승자, 로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서의 준비를 더 든든히 갖추도록 하자는것입니다.

당에서 호소한지 얼마 안되어 전국의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무려 10여만명의 청년들이 수도건설에 탄원해나서고 만사람의 뜨거운 격려와 바래움속에 평양행을 재촉하는것을 보면서 온 나라는 격동으로 들끓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는 몇배로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청년건설자동무들!

동무들은 평양건설의 번영기가 제일 고조된 시기에 여기에 참전한 영예로운 건설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건설대오앞에 부과된 임무는 단지 수도시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수를 몇천세대 더 늘인다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동무들이 세우게 될 새 거리는 주체건축발전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참으로 보람있고 자부할만한 건설대상입니다.

초고층살림집과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로 하나의 웅대한 거리축과 살림집단지를 이루고 공공건물들이 조화롭게 들어앉게 될 이 건설은 주체건축발전과 특히 수도건설에서의 표본으로, 중요한 경험으로 될것입니다.

특색있는 이 거리의 대건축군은 우리 국가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이며 가장 간고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의 전진과 투쟁이 얼마나 더 상승하고 발전하고있으며 얼마나 더 기세차게 확대되고있는가를 뚜렷이, 세상에 보란듯이 실증해주게 될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하나의 건설사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치투쟁입니다.

이런 중대한 혁명의 과업이 동무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시대를 대표하며 력사에 남는 위훈을 세우려 하는 청년들의 기개와 투쟁정신이 전세대 청년들뿐 아니라 오늘의 청년세대에도 그대로 살아 높뛰고있다는것을 바로 이 전구에서 기세충천한 동무들의 모습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도 다 아다싶이 올해 수도의 건설전역에는 여기 4, 100세대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강동온실농장건설이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수도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수도, 어머니평양을 위한것이기에 우리 당은 다같이 중시하고 강력히 추진하고있지만 동무들이 맡은 새 거리건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거리의 완공이 가지는 의의도 크고 중요하지만 보다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10여만 청년대군이 건설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 크고 귀중하기때문입니다.

새 거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해제껴야 하는 힘겨운 투쟁인것만큼 이제 건설에 착수하면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애국에 불타는 열혈청년들의 집단은 그 어떤 난관도 애로도 뚫고나갈수 있습니다.

경험과 기능도 부족하고 생소한 일이 많기때문에 동요할수도 있고 나약해질수도 있지만 조직과 집단, 동지들에게 의거하고 탄원할 때의 맹세를 돌이켜보면서 용감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모르는것은 배우고 힘이 모자라면 서로 보충하면서 공사과제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하며 순결한 량심과 지성을 바쳐 모든 공사대상들을 후세에 물려줄 재부로 되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제 온 나라는 한층한층 솟구치는 건축물들의 면모와 더불어 나날이 역세여지고 슬기로워지는 우리 청년들의 성장을 보게 될것이며 수도의 입구에 일떠서는 희한한 새 거리의 위용에서 몰라보게 자라나고 커지는 우리 청년들의 리상과 포부와 원대한 꿈, 담력과 배짱을 보게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세대, 아버지, 어머니세대처럼 수도건설에 고귀한 땀을 바친 청춘의 자랑과 영예를 지니게 될것이며 나의

수도, 나의 평양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위훈의 사연을 자서전에 새겨넣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라난 청년대군은 앞으로 자기의 고향도시, 고향마을로 돌아가 수도건설과정에 배운 투쟁방식, 창조본때로 또다시 변혁적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것이며 이것이 새 거리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일로 중요시하는 최고의 결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청년건설자동무들!

기적창조의 시각이 왔습니다.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이 시대가 동무들의 기세를 바라보고있습니다.

본때를 보일 때가 왔습니다.

평양시민들이 청년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고있고 동무들을 추천해주고 파견한 청년동맹조직들과 사랑하는 자식을 슬하에서 기꺼이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지켜보고있으며 온 나라가 동무들의 투쟁성과를 고대하고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온 세계가 주시할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불가항력의 영웅적투쟁으로 보답하여 바로 이 자리에 2023년도에 기어이 우리 청년들의 노도의 기세와 견줄데 없는 영웅성과 고귀한 명예와도 잘 어울리는 새 거리를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모두가 부디 건강해서 고생을 이겨내고 꼭 영예로운 승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모두다 조선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의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나갑시다.

* * *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여

4월의 봄빛이 짙어간다.

산과 들마다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온갖 새들의 지저귓소리가 봄노래마냥 유정하게 울려 퍼진다. 마치도 온 겨우내 이 계절을 기다려 그 향기를 아껴온듯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향기가 조국강산에 넘쳐흐르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밝은 모습인양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마다에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해마다 4월을 맞이할 때마다 조국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하나의 생각,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께서는 세월의 꺾은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에게는 언제나 꽃피는 봄날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다.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육친적인 부름인 우리 아버이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나에게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있을 때이다라고 하시며 늘 인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마음속생각까지도 모두 헤아려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민군후방가족어머니

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며칠 전 해군에서 복무하고있는 그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 편지를 다 읽고나신 그이께서는 아들이 참 똑똑하다고, 편지를

아주 잘 썼다고 치하하시며 어머니에게 아들이 부락한 책을 보내주었는가고 따듯이 물어주

시였다. 그 책을 구할수 없어 아직 보내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



김책군 상평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8(1959)년 3월

신 그이께서는 아들이 해군에서 복무한다니 그런 책이 꼭 필요할것이라고, 자신께서 보던 책이 있으니 그걸 보내주자고 다심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하듯 후방가족어머니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은 이런분이시였다.

어느해인가 학원원아들의 운동회에 몸소 참가하시여 사람찾기경기에 나선 한 소년이 《아버지》라고 쓴 글썩지를 쥐고 안타까와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께서 아버지라고 하시며 그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함께 달리신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아버지를 잃고 그후 어머니마저 여윈 영육이네 어린 네 형제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오랜 세월 육친의 정을 기울여주시며 그들모두를 나라의 어엿한 역군으로 키워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나날 인민생활때문에 잠 못이루시며 일군들에게 가정주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먼저 손에 잡는것이 무엇인줄 아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성냥이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고생많은 인민들이 성냥이 없어 안타까와하지

않도록 성냥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그토록 다심하게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몸소 호미를 드시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시며 농민들에게 포기농사의 원리와 우월성을 해설해주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동북단 마을에도 찾아가시여 인민들의 살림살이형편을 료해하시고 앞으로 잘살 방도를 함께 모색해주시였으며 한평생 인민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언제인가는 새벽에 어느한 농장마을을 찾으시여 농민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마당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려주시였고 어느때인가는 명석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해주시였다.

조선서해의 짙물이 대동강에 흘러들던 그 가물든 봄날 어느한 농장의 포전을 찾으시여서는 논물을 성큼 떠서 맛을 보기도 하시였다.

산간마을을 찾으시여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고 바다가마을에 가시여서는 학생들의 희망을 들으시고 자연을 정복해야 살수 있다고, 바다의 무진장한 자원을 캐내는 바다

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타 이르기도 하시였다.

생애의 마지막해였던 주체83(1994)년 6월에만도 80이 넘은 고령의 몸으로 30℃이상의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농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정녕 저 멀리 분계연선도시로부터 조국의 북변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 인민을 찾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견고걸으신 현지도로정의 총연장거리는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57만 8 000여km이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우리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고 위대한수령님은 조국인민 누구나의 마음속에 태양과도 같은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숭엄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그이를 직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있으며 또 그렇게 부르는데 습관되어 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께서는 오늘도 《우리 아버지》로 조국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본사기자 엄향심

투각무늬도자기꽃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제87차 재중동포조국방문단이 드린 선물
주체80(1991)년 9월

함작은 불가능한가?

(전호에서 계속)

반일인민유격대가 통화현성에 입성한것은 6월 29일 저녁이었다.

독립군들은 시내곳곳에 《반일인민유격대를 환영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을 독립시키자!》 등의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였다. 수백명의 독립군병사들과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맞이하였다. 량세봉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독립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적계기로 삼으려고 했던것 같다.

안도에서 온 우리일행은 즉시에 두패로 나뉘어 류본초가 데리고온 구국군병사들은 자위군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솔하고있는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였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을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우리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상외로 대단히 좋았다. 그들은 안도에서 유격대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날창이나 화승대를 멘 촌바우들을 상상했는데 만나고보니 멀쑥한 신사군대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날 밤 나는 량세봉사령의 집을 방문하였다. 량사령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량사령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였다.

《어머니는 안도에 가신 다음에도 선생님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량사령선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

러주고 너를 화성의숙에도 추천해보냈는데 그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량사령은 그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었다.

《나하구 자네 아버지야 의형제간인데 은공이 구 뭐구 할게 있나. 성주 아버지한테서 받아온 편달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야말로 백골난망이라고 할수 있지. 자네 어머니는 좀 어떤가?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달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병이 퍼그나 깊어진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계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문안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통화시내에 들어설 때 받은 인상을 펴 려했다.

《사령님의 부하들이 수백명이나 거리에 펼쳐 나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줄 때 우리는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독립군의 얼굴색이 밝은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접대만은 소홀히 하지 않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도를 떠나기 전에 사령님의 부대가 당취오의 료녕민중자위군과 합세하여 통화현성을 포위하고 손쉽게 차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리 자랑할 전과가 못돼. 자위군이 수만명이나 되는데 성시 하나도 공략하지 못하면야 무슨 명분으로 밥을 먹겠나.》

량세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통화현성포위전의 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량세봉의 집에서 하루밤 잤다.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량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량세봉이 우리의 원정목적을 묻지 않는것이 좀 불안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해주는 그의 진심에 넘치는 행동을 보고 답판이 잘돼 갈것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먼저 펴것은 량사령이었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말은 이런것이였다.

《대장도 알다싶이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술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리춘운,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현... 이진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였다. 량사령이 스스로 함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였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견지에서 부감하는 량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때문에 인심을 다 잃었던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 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 닭보듯 하거든. 이진 순전히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가 노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량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지독한 령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였다. 그는 설달그믐께부터 매년 지주의 빛독촉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 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였으며 무우시래기에 피쌀을 섞어서 쏜 죽으로 기아의 해들을 기적적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다음호에 계속)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여

4월 25일은 조국의 진정한 첫 무장력인 조선 인민혁명군의 창건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새형의 혁명적무장력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찌기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번영이 있고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자위적국방건설의 우선적발전을 국가건설원칙으로 일관하게 견지해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혁명무력건설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신 후 정규무력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었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한 평양학원이 나오고 그를 모체로 하여 여러 군종, 병종들의 군사교육기관들이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가 조직되고 자립적병기공업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주체37(1948)년 2월 8일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당면한 전투나 전시생산만이 아니라 전망적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세우시었다.

그리하여 군사간부양성의 종합적기지인 고급

군사학교(오늘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와 포병군관학교, 군의군관학교들이 창설되었으며 첫 공장대학이 전쟁시기 국방공업부문에서 태어났다.

그이께서는 전후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다그치시었다.

1960년대 까리브헤위기때에도 세계정치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신 그이께서는 주체51(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전체 인민이 나라의 생존권, 자주권을 위한 국방건설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조국이 년대를 이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그이께서 내놓으신 자위의 국방건설 사상이 안아온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즐기치게 이어가시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그이께서 혁명무력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나날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랭전이 종식된것을 기회로 더욱 악랄해진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조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조국은 심각한 경제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위기설에 대하여 떠들면서 제나름대로의 《조선붕괴》시간표를 짜놓고 3개월인가, 3년인가 하면서 조선의 생존기한을 점쳐보기까지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었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가 비낀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수여해주시고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은 그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였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강화하여야 나라의 군력을 강화할수 있고 사회주의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신 그이이시였다.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강화는 한시도 미룰수 없다는 그이의 철의 신념과 애국헌신에 의하여 조국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대적도 일격에 짓밟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렬강들에 의해 란도질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국이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는것도 그이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이다.

조국이 것처럼 엄혹한 속에서도 단독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수호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걸출한 위인적품모와 당의 령도밑에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그이의 혁명무력령도실록은 군건설과 군사화

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풀어나가는 독창성과 과학성, 현명성으로 일관되어있고 장병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져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목표로,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기본으로, 전략적인 제1대과업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혁명무력이 불패의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떨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몸소 흠뻑지날리고 포연자욱한 훈련장들을 찾으시여 백승의 방략도 밝혀주시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도 지펴주시였으며 여러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들도 조직해주시여 혁명무력의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었다.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을 깊이 통찰하시고 군사기술강군화에 커다란 힘을 넣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혁명무력은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을 민족자존의 중대사로,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여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을 마련해주시었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강위력한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탄생, 불가역적인 군사기술적강세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사생결단의 힘로 역경을 굴함없이 헤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다. 렬강들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러들던 시대에 중지부를 찍고 조선인민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것은 그이께서 국가와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최상최대의 업적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슬하에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불패의 우리 혁명무력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자랑이고 긍지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그이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람들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나에게도 영원히 가슴속에 안고 살 소중한 날이 있으니 그 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었던 날이다.

주체 103(2014)년 1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국가과학원에 오시어 111호제작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겠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성시를 수도 평양의 위성도시라고 하시었는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도 담아 새로 일떠세우는 과학자거리의 이름도 지어주시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새 살림집들을 건설해주시는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새로 일떠설 거리의 이름까지 명명해주시는 그이의 은정에 나는 북받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조국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우리들을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나는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과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자들처럼 북받은 과학자들은 아마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날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신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를 찾으시었다. 한해전 몸소 배를 타시고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휴양소자리를 잡아 주신데 이어 이날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주시는 불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이곳에 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그이의 사랑은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것이였다.

주체 107(2018)년 1월에 또다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오늘 곳곳에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미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 등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우리 지식인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나는 9년전 그날에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성파로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에 적극 기여하겠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 류성은

위민헌신의 나날에

기념사진속의 제작소이름

주체 105(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개건확장된 평양자라공장을 찾으시였다.

시중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무인먹이공급기가 있는 실내자라양식장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당황해났다. 자라의 생육조건에 맞게 꾸려진 양식장안은 그저 서있기만 해도 땀이 철철 흐를 정도로 몹시 덥고 습하고 어두웠다.

그런데도 그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무인먹이공급기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붉은 글자들이 큼직하게 새겨져있는 무인먹이공급기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과학자들이 개발하여 조국의 양식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설비였다.

마치 눈이라도 달린듯 장애물까지 피해가며 자동적으로 먹이를 주는 작업모습을 한참이나 세심히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정말 착상을 잘하였다고, 지난해 자라양식에 필요한 무인먹이공급기재를 창안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훌륭히 집행하였다고,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식의 무인먹이공급기를 연구개발한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이 무인먹이운반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바에는 무인먹이운반차에 씌어진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나올수 있게 찍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뚜렷이 보이는 무인먹이운반차를 가운데 놓고 그이께서 제작소일군과 함께 찍으신 이채로운 기념사진이 력사에 남게 되였다.

주택지구에 생겨난 터밭

주체 103(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넓은 지역에 일떠서고있는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건물들의 간격이 너무 넓은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저렇게 넓은 공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잔디를 심으려 한다고 말씀을 올리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주택지구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사이에 잔디를 심는것보다는 터밭과 온실을 잘 꾸려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여러가지 건축학적문제를 고려하기에 앞서 과학자들의 생활적요구를 첫자리에 놓으시는 그이이시였다.

품들어 마련한 금방석

주체 103(2014)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아주시였다.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로대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종합봉사소건물과 휴양각들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건축형식이 멋있는데 대하여서도 높이 치하해주시고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바로 이때였다. 외랑을 따라가시던 그이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멋들어진 휴양소의 풍경에 심취되어 사진을 찍고있는 몇명의 촬영가들을 향해 빨리 나오라고 급히 손짓하시는데였다.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던 그들은 자기들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사진을 찍는데 정신을 팔다보니 그만 걸음길계계를 지은 턱을 넘어 잔디를 밟고있었던 것이다.

동행한 일군들은 휴양소를 돌아보시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이라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진정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해주시고 여기에 자그마한 흙이라도 생길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이시였다.

* * *

생산력을 부단히 높여나간다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

조국의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종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련합기업소에서는 각 지 수력발전소들에 설치할 발전설비들과 화력발전소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보수설비부속품,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 기술부기상장 김정길은 《기업소앞에 나선 대상설비생산과제는 방대하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담보는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계획적으로 진척시키고있다.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탐구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기술자들속에서 심화되는 속에 련합기업소는 수십대의 대형가공선반들에 수차식주축회전 속도장치를 도입하여 가공품의 생산성과 정밀도를 1.5배로 높이였으며 발전효율이 높은 새로운 수력타빈을 제작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효율높은 열처리공정과 폭발에 의한 관용접공정을 확립함으로써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에 필요한 가압기, 증기발생기동체, 원통부들의 기술적요조건들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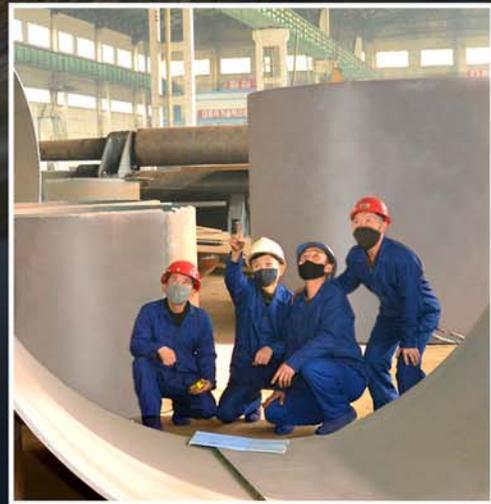
대상설비생산과제가 늘어나는것과 관련하여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지구, 장비들도 적극 연구개발하여 생산능력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한편 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이라는 관점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심형으로 주형틀을 대용한 조형방법과 산소열법용광로의 선철을 리용한 배아링강생산방법 등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의 드높은 열의는 곧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명주실생산에 권일 혁신

- 희천제사공장에서 -

희천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명주실생산에서 권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해마다 공장에서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앞선 단위의 영예를 고수하여왔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는 하루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한 작업반이 늘어나고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공장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올해에도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을 혁신창조예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혁신적인 소식들을 소개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명주실생산을 늘

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조직하고있으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의가 생산자대중속에서 더욱 높히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명주실생산의 기본공정을 맡은 조사공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라잡으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혁신은 재조작업반과 자견작업반, 공무작업반, 열관리작업반 등 그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부족품가공에 필요한 지구장비들을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열관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소비량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증기생산을 늘이고있다.

지금 공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는 그대로 명주실생산성파로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

좌담회



김정학
교육위원회 국장



리영일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김연화
선교구역 룡곡고급중학교
교장 인민교원



연옥
본사기자

기자: 오늘 조국의 존엄과 국력은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극심한 악조건에서도 경제와 문화건설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학: 그렇습니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주체107(2018)년 4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 전략적구호에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대한 국가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놓으며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로 위력한 나라, 인재가 바다를 이룬 나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영일: 자본이나 자원이 국가발전에서 결정적우위를 차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 해

당 나라와 민족의 국력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세계무대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전령에 서기 위한 과학기술대결전과 인재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대세력들은 선진과학과 기술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음모로얄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연화: 예. 그런데로부터 과학기술전선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면 교육부문은 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력경쟁, 과학기술경쟁에서 지속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병참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며 서로 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기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서 생산활성의 묘술이 나오고 교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들이 자라납니다.

하기에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

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리영일: 옳은 말입니다. 우리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기능성종이제품들을 연구개발하였습니다. 고성능공기려과종이와 건전지용격막종이, 각종 료전기재기판용려과종이를 비롯한 10여종의 기능성종이제품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개발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물질절약형, 환경보호형종이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김화군 종이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 확대도입하는 성과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착상하고 창조해나가는 여기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고 사회주의강국을 앞당겨 일떠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연화: 지금처럼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학용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후원밑에 교육조건과 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당과 국가의 사랑은 곧 교육부문에 돌려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높은 학과성적으로

보답해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의가 향상된만큼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 모두가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선진교육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방법을 10여건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나날 새 교수방법은 실력 있는 몇몇 교원들만 내놓을 수 있다는 낡은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사업의 주인이라는 교원들의 자각과 진지한 탐구정신, 노력에 의하여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교육사업강화에 인재육성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김정학: 나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잘살려면 교육부문부터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년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온 사회에 교육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갔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를 열고 수천종의 설비들을 전시하였으

며 그 가운데서 우수한 설비들을 전국에 일반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는 교육구조로 고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받들고 교육혁명을 높은 단계에서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수관리제도를 혁신하며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교육방법을 창조도입해오는 과정에 축적된 귀중한 경험을 살려나간다면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얼마만큼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일군들과 전국의 교육자들은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혁신하여 우리의 교육을 단번도약시킬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이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은 곧 나라의 부흥발전이며 여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로동자대학생들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로동자대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 있는 원격교육 학부에 입학한 많은 로동자들이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새로운 과학기술적도태우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들중에는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로동자대학생들도 있다.

공장의 기능공학교 교원 리향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여러 대학의 원격교육학부에서 공부하는 17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열심히 배우는 한편 공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기사들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로동자대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향했다.

케블직장에서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전기기계기구학과에서 공부하고있는 홍금혁을 만났다.

그는 직장에서 모범기대공으로 손꼽히고있었는데 그것은

다 원격교육의 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격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맡은 기대에 더 정통할수 있을뿐 아니라 생산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착상도 내놓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원격교육이 대학에 직접 가지 않고 현장에서 배울수 있고 이해될 때까지 입력된 강의를 되돌려볼수 있어 좋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우리는 창의고안명수로 떠받들리고있는 기술과 로동자 임철혁도 만나보았다.

《올해 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하면서 배우자니 힘들었습니다.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격교육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공장의 보배로 떠받들리우는것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하군 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학기간 전자기구련결선의 형타를 가공하는 선불꽃가공반의 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을 하였다. 그것은 종전의 가공반보다 속도를 3.5배나

올려 로력과 시간,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는것이였다. 이외에도 그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연구사들과 함께 여러건의 창의고안도 하였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로동자대학생들인 케블직장의 기대공 태진혁, 홍영림은 언제나 직장앞에 제기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앞장섰다.

그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에 의해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기사장 김성운은 《지금은 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썩이 자라면 거목이 될것입니다. 원격교육체계는 로동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로동자대학생들이 많은것은 우리 공장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공장의 최우수기능공, 기술자들이 이 로동자대학생들속에서 계속 배출될것입니다.》라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분석설비의 개발자들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있는 연구사들



《팔다리가 성성한 사람도 눈과 귀가 없으면 제대로 걸어 갈수 없는것처럼 우리의 실정, 우리의 조건에 맞는 분석설비가 없으면 그만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사업도 떠지게 된다.》

이 말은 조국에서 처음으로 분석설비개발에 나섰던 김책공업종합대학 분석기구연구소 소장인 우려를 표시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당시 선진적인 분석설비개발은 이곳 연구집단에게 있어서 생소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개발에 나섰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몇해전 어느한 강철공장에 갔던 그들은 사장되어있는 다른 나라의 분석설비를 보게 되었다. 설비는 이름있는 회사에서 만든것으로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것이였지만 공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지 않고 수입산 고순도아르곤가스를 쓰는것으로 하여 실리가 없었다.

당시 이들은 그 설비를 보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 시키는데서 눈과 귀가 될 분석설비들을 하루빨리 국산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다름아닌 자기들이 그것을 맡아

해결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연구사업을 시작한 그들이였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물질의 물리적특성과 광학, 전기, 전자, 수학의 포괄적인 지식과 기술의 종합체인 고도로 정교화된 분석설비개발은 보다 다방면적인 지식, 강의한 의지를 요구하였다. 더우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순도아르곤가스를 배제한 새로운 분석설비를 개발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안목과 착상으로 아르곤가스를 쓰지 않는 발광스펙트럼분석기술을 확립한데 이어 나라의 실정에 맞는 분석자료전송체계와 분석시편관송체계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주체적인 분석설비의 첫 실체를 내놓았다. 어느한 강철공장에 도입한 결과 설비의 분석시간은 30s였고 종전의것보다 분석정확도는 10배로 높아졌다. 하여 로력과 자재, 용해시간을 극력 줄이면서도 강제생산을 늘이는것은 물론 강질도 훨씬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성과는 공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의 웅당한 평

가를 받게 되었다. 연구집단은 성과에 토대하여 분석설비들을 천리마계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기업소, 공장들에 도입하는 한편 이미 있던 수입산분석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따르세웠다. 그리고 여러 용도의 분석설비들도 제작하였다.

그 과정에 연구집단은 각종 금속 및 비금속재료에 들어있는 탄소, 류황함량을 빠른 시간안에 산출해낼수 있는 탄소류황분석기를 비롯한 원자형광분석기, 근적외선스펙트럼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등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분석기들은 금속, 채취, 식료부문과 축산, 의학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고 한다.

연구집단은 지금 다품종, 고품질, 저가격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용도의 분석설비들을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가고있다.

지금 그들은 《재료분석》과 《야금분석》 2개의 학과목을 개척하고 자기들의 연구성과들을 교수에 적극 활용하고있다.

연구집단은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학술 및 기술교류와 함께 공동연구도 진행하였다.

주체104(2015)년 이곳 연구집단이 이룩한 연구성과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발명가메달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연구사들이 받은 세계지적소유권증서와 메달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쳐나는 송화거리



얼마전 휴식일 우리는 송화거리가 일떠선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곳을 찾았다. 우리의 발걸음은 먼저 송화1동 3호동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의 흥취나는 노래선물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고층살림집의 앞공지에서는 민족의상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민요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고있는 리명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춤과 노래를 떠난 우리의 생활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명절날이나 쉬는날이면 인민반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이렇게 흥겨운 춤판을 펼친답니다.》

우리는 인민반장의 안내를 받으며 5층 3호로 향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집에서는 웃놀이경기가 한창이라는것이였다.

《모 나오라-》 하며 웃알을 던지는 할아버지, 자기말들이 잡히면 어찌라 하는 심정으로 두손을 가슴에 꼭대고있는 중년녀성, 바라던

웃알이 나오자 환성을 올리는 주민들...

집주인인 김옥녀녀성은 경기를 통하여 인민반이 화목한 인민반으로 되고 좋은 일을 찾아하는데서도 앞장서고있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12층 3호의 교육자가정에도 들리였다. 세대주인 리성일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도 년로보장을 받기 전까지 교육자였다고 한다.

《이전에 살던 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교육자가정이라고 이 송화거리가 일떠서자 새집을 배정해주었습니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던 날 온 가족이 모여앉아 울고웃던 때가 옛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라고 김영숙녀성은 말하였다.

나라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리성일은 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육구조와 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안해인 김영숙도 새로운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평가를 받았다.



자기 인민반의 주민들을 내세워주고 싶어하는 인민반장의 마음에 이끌려 우리는 20층 3호에서 살고있는 김영철가정에도 들러보았다.

집에 들어서니 현악기의 은은한 노래선율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세대주 김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종종 온 가족이 모여앉아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곤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느라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

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의 사랑에 떠받들려 만복을 누리게 되니 저절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곤 합니다.》

어느 가정에 들러보아도, 그누구를 만나보아도 나라의 고마움에 감격해하는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었다.

인민반장 리혜영은 1년새에 호동의 식구수가 늘어났다고 하

면서 이는 가정의 경사, 호동의 경사라고 하였다.

어느덧 송화지구에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낮에는 느낄수 없는 새로운 흥취를 돋구어주는 송화거리의 밤경치가 펼쳐졌다.

송화거리에 흘러넘치는 근로자들의 기쁨에서 우리는 인민이 누리는 문명과 행복의 높이를 보았으며 보답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는 열의도 느낄수 있

었다.

새 거리의 주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보다 더 좋아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송화거리를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송화 1동 3호동을 찾아서



고조되 고있는

승마바탕



주체102(2013)년 10월 평양시교외의 넓은 부지면적에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미림승마구락부가 준공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그들중에는 유치원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의 사람들이 다 있다.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타고 주로를 내달리는 청년들, 각자의 표정은 각이하지만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희열과 량만이 한껏 어려있다.

그들은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다양한 승마지식도 보급받고있다.

최근에는 년례적으로 다채로운 승마경기들이 조직되어 승마운동에 대한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있다.

주체106(2017)년 10월 처음으로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가 열린데 이어 그후부터 봄철과 가을철에 승마애호가경기가 진행되고있다.

지난해에도 실명절과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승마경기들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들과 많은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2022년 실명절 승마경기가 불만하였다.

야외경마주로에서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박차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 전문가이고 애호가인지 구별할수 없게하였다.

그런가 하면 실내승마훈련장에서는 애호가장에물뛰여넘기경기, 작은말장애물뛰여넘기경기,



승마운동은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오는 조선민족풍습의 하나이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승마운동으로 시간가는줄 모른다.



(2019년 촬영)

애호가등자벗고속보경기가 진행되어 관중들의 인기를 모았다.

또한 2022년 3. 8국제부녀절기념 승마경기도 이채를 띠었다.

여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부부기마수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의 경기는 관중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외경마주로는 기마수 1 600m 경주, 남자애호가 1 600m경주, 여자애호가 1 600m경주가 관중들의 열기띤 응원속에 진행되었다.

남자애호가 1 600m경주에 참가하였던 만경대구역 선구자동 6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60살을 넘긴 전유순로인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를 즐겨하

였다. 오늘 경기에 참가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니 10년은 더 젊어지는것같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협회 서기장 리동준은 나날이 승마애호가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풍습은 승마를 통해서도 전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승마운동은 지방들에서도 진행되고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유원지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곳에도 승마주로들이 닦아졌다.

승마운동에 대한 관심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고려주사약 침료법을 연구확립한 여박사

종균생산의 공업화를 실현

수도의 교외에 위치하고있는 지방공업성 식료공업연구원 발효연구소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균주보존연구실, 장공학연구실, 주류공학연구실, 효소공학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지난 기간 장을 비롯한 발효제품의 연구개발 및 도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젓생산용가루젓산균을 개발하였다.

세계적으로 신젓, 술, 맥주생산에 가루젓산균과 같은 직접첨가형발효제를 쓰는것이 추세로되고있다.

그것은 가루젓산균과 같이 응용미생물들을 가루상태로 만들면 확대배양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젓제품생산에 리용할수 있고 보관안전성도 높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2년전부터 로확철, 하준혁실장들과 연구사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천연원료를 찾아내고 적합한 배합비율

을 확정하였으며 보관안전성을 보다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동결보호제도 완성하게 되었다.

하여 짧은 기간에 가루젓산균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분석실, 배양실, 동결건조실, 위생통과실 등을 갖춘 가루종균생산실험실을 꾸려놓고 젓제품의 질개선에 이바지하는 소형배양탱크들과 교압멸균기 등 설비들도 자체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종균을 리용한 젓제품들에 대한 맛도 보면서 연구를 더 심화시켰으며 종균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다.

지금 이들의 노력이 깃든 신젓생산용가루젓산균은 전국에 공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종균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한다.

평양시고려병원에는 사람들로부터 《약침박사》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다. 그는 난치나 이실 의사 박송실이다.

5년전 박송실이 새롭게 연구확립한 약침료법이 의학계의 파문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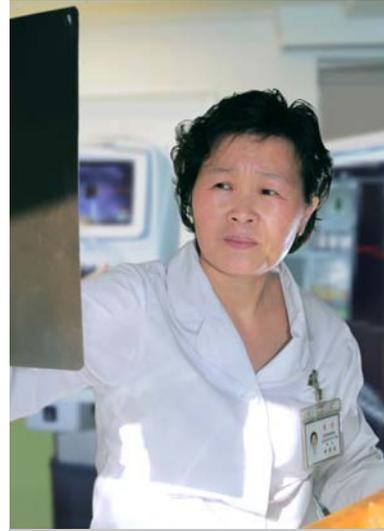
그의 약침료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약침치료에 리용되는 약의 가지수가 150여가지나 되며 그것이 조국에서 나는 고려약재를 가지고 만든것이라는데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척추질환과 슬관절, 경추질환은 물론 호흡기계통, 순환기계통 등 그 적용범위도 매우 넓은것이다.

연구동기에 대하여 그는 《신의학적방법만으로는 난치성질환들을 완치시킬수 없었다. 이런데로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배합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시 약침치료방법에 리용되던 신약대신 국내의 풍부한 고려약물을 적용할 착상을 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달라붙었다.

결과 그는 환자의 체질과 질병의 경과상태, 허실관계와 같은 개체적특성에 맞게 고려약물의 종류와 용량, 그 배합과 약침점을 옳바로 선정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가지 고려약물들을 리용한 약침료법은 림상에 도입되자마자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



평양시고려병원 의사 박사 박송실

신의학적치료에 비한 고려치료법의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확증한 그는 고려주사약침료법을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갔다.

그의 탐구는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도 멈춤이 없었다.

그의 진취적인 연구태도와 높은 실력은 가치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수년간 그는 난치성질환들을 앓고있는 환자들을 고려주사약침료법으로 적지 않게 완치시키였으며 과학적인 치료방법도 확증하였다.

수술적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그의 연구성과는 전국의학과 학기술축전과 토론회들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당시까지 이렇다할 치료방법이 서있지 않았던 대퇴골두무균성괴사를 수술적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서도 고려주사약침료법으로 90%이상의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확증한 연구자료는 조국의 의학과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되었으며 이로 하여 그는 주체107(201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약물을 리용한 약침료법은 암성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들의 치료에 광범히 리용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약침료법의 우점은 침혈에 대한 물리적자극과 함께 주입된 약물의 침혈부위국소감수기에 대한 생화학적자극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최대로 얻게 한다. 뿐만아니라 치료폭이 넓고 효과가 높은 반면에 치료원가가 매우 적으며 환자에게 주는 부담과 부작용이 없는것이다.

민족의 전통의학유산의 하나인 침구술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고려치료방법으로서 큰 림상적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고려주사약침료법은 주체105(2016)년 10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올해 53살인 그는 고려주사약침료법으로 난치성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수석을 채취하는 사람들



자연계에는 기묘하게 생긴 천연돌들이 많다.

그가운데는 오랜 세월 눈과 비, 계절적 온도변화와 물의 압력, 충격에 의하여 천연적으로 형성된 희귀한 모양새를 갖춘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석이라고 한다.

수석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급속히 수요가 높아가고있는 실내장식용자연돌로서 조국에서도 이미전에 이에 대한 채취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가치있는 명수석들이 많이 수집되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는 조선수석협회의 지도밑에 이 사업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미석수집소가 있다.

이곳 종업원들이 수집하고있는 수석제품들을 보면 매우 기묘하고 희귀할뿐 아니라 그 종수도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조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 폭포 등의 자연 풍경을 형상한 품위있는 산수경석이 있는가 하면 모양과 형태가 마치 인물이나 동물 아니면 자연계의 무엇인가를 닮았거나 류사한 감을 주는것과 같은 형상석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돌의 겉면에 그림이나 글자, 수자가 있는 문양석, 오랜 세월의 자취감과 세월감을 안겨주는 고래미석 등 그 모양은 천태만상을 이룬다.

수집소의 종업원들은 이러한 수석을 20여년간 채취해오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수석채취를 단순히 그 어떤 천연돌수집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수석을 놓고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문명수준이 평가되기때문이다.

조선수석협회 서기장이며 이곳 미석수집소 소장인 배운남은 말하였다.

《초시기 우리는 몇종의 수석제품들을 가지고 어느한 나라의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밖으로 제품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며 높은 가격으로 우리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그들중에는 이 부문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과 문명과 재부에서 제노라 하는 나라 사

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자연부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더욱 커지게 되었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더 좋은 수석을 더 많이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도 가지게 되었다.》

수집소에서는 지난 기간 수석자원의 연구와 원천조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수석의 재질, 색, 형태를 해명하고 제품화의 견지에서 그것들의 호상관계, 수석원천의 조사장악, 채취시기와 채취방법 등을 하나하나 밝혀내었다. 그에 토대하여 그들은 질 좋은 수석을 계획적으로 채취하고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문양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석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모양새가 곱고 색깔이 청색인것이 특징이다. 그런가 하면 남강류역에서는 문양석중에서도 색깔이 검은 수석이 많이 나오고 금강산지구에서는 특이한 천연 자연을 닮은 산수경석과 문양석, 고래미석 등을 채취하고있다.

채취된 수석제품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적인 박람회들과 상품전시회들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제품들이 보급되었다. 특히 해외동포들은 수석제품을 조국의 상징으로 여기며 많이 구입하고있다.

조국의 아름다운 자원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려는 이곳 수집소종업원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배운남
조선수석협회 서기장
미석수집소 소장

《우리 나라는 령토의 70% 이상이 수석형성에 유리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강 하천과 각이한 규모의 인공 및 천연호수 등이 있어 수석자원이 매우 무진장하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조국의 농촌마을들이 몰라보게 전변되고있는 속에 평양시의 락랑구역 남사리 농장마을에도 새집들이 일떠섰다.

8년전 어느 봄날 래를 묻은 고향 남사리를 찾아왔던 중국 길림성에 살고있는 래준일동포가 이제 다시 온다면 아마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변모된 동포의 고향소식을 전하고싶어 얼마전 남사리로 향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느라니 남사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이 한눈에 바라보이였다.

여러동의 3층짜리 소층살림집들과 수십개의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저마다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마을입구에서 영농준비로 한창인 농장원들을 만났다.

남사리를 소개하러 온 기자들이라는 우리의 말에 한 농장원은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면서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중나온 농장일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우리를 《김찬복》이라는 문패를 단

집으로 안내하였다. 아담한 집주변에는 갖가지 남새를 심을수 있는 터밭이 있고 추리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이 자라고있었다. 살림집내부도 여러개의 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지난해 7월 락랑구역에서는 살림집건설착공을 한 때로부터 몇달 안되는 사이에 130여세대나 건설하였다.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 농장원들은 자기들이 살게 될 새 살림집들이 완공될 때까지 모래 한삽 떠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농사를 더 직심스레 한 그들이였다.

하여 그들은 지난해 연간분배를 받은 기쁨이 가셔지기도 전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었다. 그날 명절옷차림을 하고 손에손에 공화국기를 든 남녀로소가 어깨를 들썩이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였다고 한다.

우리가 다음으로 들러본 집은 농산1작업반 농장원 리남일의 집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70살을 가까이한 로인이였다.



로인은 《새집이 정말 좋수다. 나라의 고마움에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그래 나도 농사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싶어 자식들과 함께 논에 거름을 낸다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긍정하며 농장일군은 새집들이가 있는 후 10여일동안 농장적인 자급비료생산실적이 종전의 같은 시기보다 4배나 뛰어올랐다고 하였다.

남사리의 새 마을을 돌아보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나라의 은정속에 마련된 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보았다.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남

사리농장원들의 심정을 담은듯 전야의 여기저기에 무저놓은 거름더미들에서는 무럭무럭 김들이 피여오르고있었다.

후날 이곳 농장원들은 자기들의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곡증산의 자랑도 함께 담아 이렇게 긍지높이 말할것이다.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봄의 향기가 실어오는 추억



4월이다.
 어디 가나 봄기운이 완연하다.
 살살 불어오는 봄바람은 하 많은 추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있다.
 그 추억의 갈피를 헤쳐보느라니 동포예술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몸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과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들이 진행될 때면 성의껏 준비한 노래와 춤을 안고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던 동포예술인들.

그들속에는 최경호, 황해월, 한선녀, 김학준, 김용, 김경자 재중동포들과 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 민족성악교수들인 리홍관, 김순희, 중국 연변가무단 성악부 부부장 리상길,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 미국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 동포,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예술단 남별, 재까자흐스탄동포들도 있다.

특히 재중동포예술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나 4월의 봄 예술축전무대에 올라 노래 《사랑의 봄빛》, 《소쩍새야》, 《불타는 소원》을 비롯하여 조국의 노래들을 잘 불러 재칭을 받았던 공훈배우 최경호가수, 제2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딸 최수려와 함께 참가하여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러 만사람을 감동시킨 그였다. 그후에는 황해월동포와 함께 노래 《장군님 모신 이 영광



전해다오》를 작사, 작곡하여 4월의 봄축전무대에서 혼성 2중창을 불렀다.

몇번이나 최경호가수와 마주 앉는 기회를 가지었던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노래를 잘 부르는가고 물은적이 있다.

그때 그는 철없던 시절 어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다고 하면서 후날 철이 들어 어머니의 진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었고 점차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은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 이제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지금껏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성을 다하리라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나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도 열렬히 사랑한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유치원시절부터 무용을 배우고 점차 우리 말, 우리 노래를 익히며 조국을 알게 되었다는 황해월동포 역시 10년 가까이 4월의 봄 예술축전들에 참가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 가수이다. 그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

예술축전에 자기가 창작한 노래 《백두의 아리랑》을 무대에 올려 축전금상을 받고 조국인민들의 축복을 받았다. 풍부한 감정과 독특한 소리색갈에 자기 특유의 춤가락을 펼쳐보이며 많은 민요를 흥취나게 부르는 그에게 조국인민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어디 그뿐이랴.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안무하여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했던 김영화동포, 길림성 교향악단의 부속학교 교원들로 사업하는 속에서도 혼성2중창을 불러 장대를 감동시켰던 김용, 김경자부부,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 《위대한 사랑의 길》, 《일심단결닐리리》 등을 잘 불러 여러 차례 축전에서 금상을 받은 연변가무단 성악배우 김학준동포,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를 절절히 부르던 한선녀동포...

그들은 극장에서, 숙소에서, 차안에서 가사와 곡상을 무르익혀가며 하나하나의 종무들을 완성했다.

연변의 자랑으로 불리우는 한선녀동포가 주체108(2019)년 4월의 봄축전무대에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를 감동깊이 불렀을 때 조국인민들은 뜨거운 눈굽을 적시었다.

그것은 동포들의 이름은 달라도 그들이 부르는 한곡한곡의 노래와 종목들에는 몸은 비록 해외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동포예술인들은 자기들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태양칭송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재중동포예술인들을 만나본 때로부터 이제는 오랜 나날이 흘렀지만 그들이 봄축전무대에서 부른 절절한 흥모와 그리움의 노래들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태양칭송의 노래를 부르는 동포예술인들



몸길이는 암컷이 55~58cm, 수컷이 57~60cm이며 키는 암컷이 47~49cm, 수컷이 49~52cm, 몸질량은 암컷이 18~22kg, 수컷이 20~24kg입니다.



조선의 국견 풍산개

아득한 먼 옛날부터 조국의 북변 풍산땅에는 이런 옛이야기가 전해져오고있습니다.

어느한 산골마을에 살고있는 사냥군로인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을 잡기 위해 날마다 산판을 해매군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날도 어께가 처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글썽 주인을 보자마자 그 집의 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개는 밤이 펍 깊어서야 돌아왔는데 온통 찢겨 피투성이였습니다. 개는 그런것에는 아랑곳없이 주인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기를 따라오라는듯 슬금슬금 문밖으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사냥군이 개를 따라 깊은 산중에 올라서니 호랑이가 쓰러져있었습니다. 바로 그 개가 호랑이를 물어메쳐서 주인의 소원을 풀어주었던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였다는 풍산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람들속에서 전해져내려오고 있습니다.

옛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것처럼 풍산개는 매우 령리하고 이악하며 용감하고 날랜 기질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성질이 온순하고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잘 따르지만 적수와의 싸움에서는 양보를 모르며 사납고 날래고 이악합니다. 보통 개들은 싸울 때면 적수의 뒤목을 물어뜯곤 하지만 풍산개는 정면공격으로 단숨에 적수의 숨통을 물어제끼는것이 특징입

니다.

지난 령사적기간에 풍산개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짐승으로만이 아니라 생활의 길동무로 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민족의 기상을 닮은것으로 하여 국가상징물의 하나로 적극 보호증식되고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오랜 령사적과정에 여러 짐승들을 길들여 사냥과 생활에 리용해왔으며 그중에서도 개를 그 어느 동물보다도 애호하였습니다.

그럼 이번호에는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조선의 국견인 풍산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풍산개의 원산지는 조선의 북부고산지대인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입니다.

풍산개는 우리 나라 산간수림지대의 지형과 기후에 적응되어있으며 전형적인 사냥개의 특성을 가지고있는 조선특산품종입니다.

풍산개의 형태학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진에서 보다싶이 대가리는 둥글고 주둥이는 짧으며 살구씨모양의 눈에는 정기가 듭니다. 귀는 비교적 작고 선삼각형이며 앞방향으로 향해있습니다. 목은 굵고 짧으며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몸통은 다부져보이며 네다리는 우로 곧추 뻗어있습니다. 털색은 흰색 또는 연한 누런색이 섞인 흰색도 있으며 이밖에 누른색, 재빛색도 있습니다.

풍산개는 다른 사냥개품종들에 비해 몸집은 작아도 매우 령리하고 용맹스럽습니다.

그러나 풍산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엔 조선사람들과 함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풍산일대에 사는 토배기들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짓밟기 위해 조선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한것도 모자라 풍산개 종자마저 없애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조국에서는 거의 멸종되다싶이 하였던 풍산개의 순종을 찾는것과 함께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풍산개는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고 국가상징물의 하나로 등록되었으며 량강도 김형권군 령덕리는 풍산개천연기념물보호구로 설정되었습니다.

오늘 풍산개의 등록과 조사, 순종평가, 보존, 번식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활동들이 국가적관심속에 활발히 진행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는 국견에 대한 인민들의 애착심과 풍산개를 기르려는 열의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해마다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풍산개문화발전의 새 령사가 펼쳐지고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국보이며 민족유산의 하나인 풍산개를 사랑하고 그 문화를 널리 발전시켜나가는 조국인민의 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가야

가야(1세기중엽-6세기중엽)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존재 하였던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그 영역은 락동강중하류류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가야봉건국가의 존재방식에서 특징적인것은 6개의 봉건소국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연합체적인 봉건국가였다는것이다.

이것은 통일적인 국가권력구조를 갖추고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구별되는것이였다.

원래 조선반도중남부지역에

는 B.C. 12세기경부터 노예 소유자가인 진국이 존재하였다.

그후 B.C. 2세기-B.C. 1세기경에 이르러 진국의 한 구성부분인 변한의 12개 소국들중 구야국과 안야국 등에서 봉건적요소들이 싹트고 발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B.C. 1세기경에는 가야봉건소국이 출현하였다.

가야건국전설에 의하면 이 가야봉건소국에는 9명의 우두머리들이 다스리는 9개의 정치세력이 있었다. 그러다가 1세기중엽경에 북방에서 남하한 김수로의 집단이 현지의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금관가야국을 맹주로 하는 6개의 가야소국(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들의 연합체인 가야봉건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나 백제, 신라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확립하였으나 가야만은 마지막까지 중앙집권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방분권적인 소국련

합체단계에 머물러있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여있은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의 간섭과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3~4세기에 이르러 가야는 신라의 영토확장전쟁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후에도 가야는 금관가야나 대가야를 중심으로 뭉쳤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공고한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여전히 약한 나라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신라의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가야연합체를 이루고있던 소국들은 6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에 의해 하나하나 각개격파되는 운명을 면할수 없었고 562년에는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다.

가야는 조선민족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로서 동족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와 평화적관계를 맺고있던 시기도 많았다. 이러한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의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경제와 문화의 여러 분야들을 발전시켰으며 바다 건너 일본열도에도 진출하여 자기의 문화를 전파시키였다.

가야는 음악과 무용을 비롯한 문학예술분야에서도 발전을 이룩하였다.

가야는 자기의 특이한 국가 존재방식을 가진 봉건국가로서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병일



홍란파와 가요 《봉선화》

홍란파(1897년-1941년)는 음악창작과 연주, 교육과 평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악활동을 진행하여 조국의 음악발전에 기여한 선구자의 한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한 그는 조선정악전습소에 입학하여 성악과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1914년부터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전심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주로 1920년대초부터 193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수십편의 서정가요와 여러편의 합창곡, 기악곡, 100여편의 동요곡들을 지었다.

그는 대중적인 음악형식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애국적감정을 반영하려는데로부터 주로 성악곡을 많이 창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

어서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덜 미치고있는 아동가요를 통하여 인민들의 민족적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아동가요창작에 많은 힘을 기울 이였다.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슬픈 감정과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 등을 주제로 하고있다. 또한 음악형상도 애수적이고 비통한 정서로 일관되어있는것이 일 반적특징으로 되고있다.

민족적정서가 짙고 인민들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소박하게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의 작품은 당시의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봉선화》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봉선화》는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민족의 운명과 슬픔을 노래한 서정가요이다.

노래에는 울밑에 처량하게 피어있는 봉선화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울분과 비애의 감정을 은유적인 형상수법으로 보여주고있다.

가요는 소박한 음조와 장단의 규칙적인 반복, 비교적 잘 짜여진 형식구조와 서정성으로 하여 작품의 기본내용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고있다.

이밖에도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도 그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다.

* * *

상식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

봄철에는 춘곤증이 온다. 이때에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졸음이 오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진다. 일능률이 오르지 않고 어깨가 빠근하며 심하면 감기에 걸린것처럼 몸이 편안치 않다. 흔히 저녁에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속에서 춘곤증증세가 나타난다. 평소의 식사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고

운동을 하는것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고단백질은 졸음을 쫓고 당분은 졸음을 부르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낮에는 고기, 저녁에는 낱알, 과일을 먹는것이 좋으며 남새, 바다나물을 먹는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 * *



가야금

널리 알려져있는것처럼 우리 나라의 민족악기인 가야금은 가야의 대표적인 음악기인 우륵이 만든것이다.

우륵은 6세기초중엽에 활동한 음악가로서 당시 사람들속에 전해지고있던 현악기를 토대로 하여 12줄로 된 특색있는 가야금을 만들어냈으며 가야금연주를 위한 12곡의 악곡들도 창작하였다.

우륵은 가야가 멸망하기 전인 551년에 제자와 함께 신라로 넘어가 연주활동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신라왕의 초청을 받아 그앞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의 연주솜씨에 감탄한 왕은 그에게 3명의 신라인을 제자로 받아 키우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가야금과 연주곡들은 신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음악유산으로 오늘 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소를 특별히 잘 그린 김식

김식이라고 하면 17세기 소를 특별히 잘 그린 동물화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자를 중후라고 하였으며 퇴촌, 죽서 등의 여러가지 호를 가지고있었다.

김식의 가문은 대대로 그림을 그려온 재능있는 화가가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김기는 당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

로 알려져있었고 작은 할아버지인 김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일생을 그림에 바친 명화가였으며 동생 김집도 역시 뛰어난 화가였다.

김식이 다른 짐승도 아닌 소를 특별히 사랑하고 소그림을 잘 그리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김식의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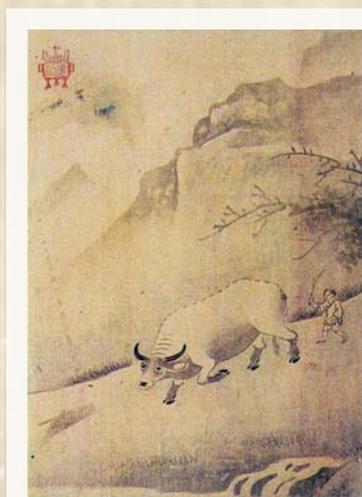
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령리한 김식을 학자로 키우고싶어했다. 그래서 김식이 다섯살 나던 해부터 천자문을 가르쳤지만 김식은 할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림그리기에 취미를 붙이고 있었다. 덩달아 손아래동생인 김집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식과 머리를 맞대고앉아 자기도 그림을 그린다면서 붓대를 들고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역시 피줄은 속이기 힘들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김식을 학자로 키우고 싶은 생각만은 버리지 않았다.

하여 동생 김집에게는 그림공부를 시켰지만 김식에게는 천자문을 가르치고 책읽기를 시켰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소란 아이》(69×59cm) 종이·먹



《소모는 아이》(27.8×19cm) 종이·담채

지나도 김식이 도무지 천자문을 외우지 못하자 할아버지는 그를 사정없이 꾸짖었다.

《이 소보다도 못한 놈, 내 너를 가르칠 품이면 우리 집 소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겠다. 못한 녀석같으니.》

발까지 탕탕 구르며 할아버지가 김식을 꾸짖었지만 김식의 말 역시 꾀짜였다.

《할아버지 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할아버진 내가 소보다도 못한 놈이라 하셨는데 그림 소에게 한번 천자문을 가르쳐보세요. 정말 소가 천자문을 외운다면 나도 할아버지가 하라는대로 하겠어요.》

너무도 당돌하게 맞서는 손자의 행동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다가 더더욱 화가나서 김식을 아예 대문밖으로 내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끼, 이 덜된 녀석같으니... 좋다. 너 좋을대로 해라.》

순간에 손자를 문밖으로 내쫓은 할아버지는 대문에 빗장까지 덜커덕 쥘렀다. 김식은 살창에서 나온 어린 새마냥 너무 좋아들이며 내가며 야산을 콩콩 뛰어다니며 들꽃, 나무잎, 잠자리며 나비 등 마음대로 꺾고 잡아가지고는 놀다가 하늘에 별이 총총 떠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고는 밤이면 등잔불아래서 그 모든것을 자기의 화첩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해가 동산에 뜨기 바쁘게 대문을 나섰다가 저녁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던 김식은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소》(98.5×57.6cm) 종이·담채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들이 지나도 김식을 글방으로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김식은 자기가 공연히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그림그리기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김식은 남들이 자기를 찾을세라 살금살금 대문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갑자기 등뒤에서 《하늘 천, 땅 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김식은 다

급히 몸을 돌렸으나 등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하늘 천, 땅 지》 하는 목소리는 그냥 들려왔다. 귀를 강구던 김식은 그것이 분명 할아버지의 목소리이며 자기 집 뒤마당에서 울리는 소리임을 느꼈다. 김식은 하도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며 뒤마당 정자나무아래에 몸을 숨기고는 소리나는 쪽을 조심히 주시하였다.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할아버지가 자기 집 누렁소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버드나무회초리를 손에 든 할아버지가 《하늘 천》 하고 소리치면 누렁이는 《음메-》 하며 대가리를 하늘로 버쩍 쳐들었고 다시 할아버지가

《땅 지》 하면 누렁이는 말소리가 끝나기도 바쁘게 또다시 《음메-》 하며 땅으로 대가리를 수그렸다. 그 모양을 보며 김식은 느껴지는바가 자못 크지라 그달음으로 할아버지앞에 꿇어앉아 자기의 잘못을 빌고는 그날부터 글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김식은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대로 동물화가 되었다. 특히 김식은 여러 종류의 그림들과 함께 소를 특별히 잘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졌는데 아마도 소와의 인연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의 소그림들은 18세기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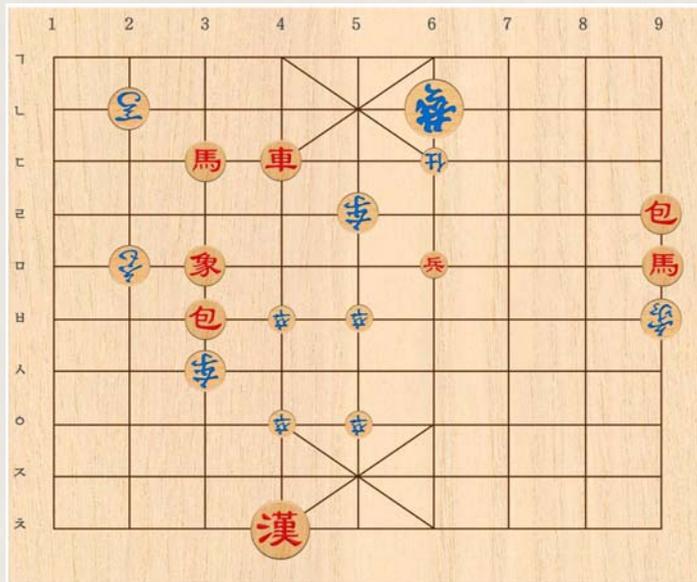
그림으로 이름떨친 김두량의 화법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란 아이》는 그의 특징적인 화법이 구현된 대표작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김식은 《해오라기》, 《도요새》, 《큰 기러기》, 《염소》를 비롯한 동물그림들과 《비파를 타며》, 《나그네》 등 인물화도 그려 다방면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17세기 우리 나라 동물화분야에서 사실주의적 화법을 특색있게 보여준 화가로 그 명성이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에도 전해진 재능있는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장기수풀이 (4)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쪽을 놓기 전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긴장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실천에서는 다 이겼다고 생각되는 형세라도 순간의 해이로 해서 비기거나 혹은 반대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데로부터 이 말은 상대방이 졌다고 쪽을 놓기 전에는 긴장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장기수풀이 (3)에 대한 답

- 1포○4, ○3병○4, ㅂ5차ㅂ4,
- ㄴ4궁ㄴ5, ㅂ4차 ㄱ4, ㄴ5궁 ㄱ4,
- ㅅ4상ㄹ2, ㄱ4궁 ㄱ5, ㅁ5말ㄷ6,
- ㄱ5궁 ㄱ6, ㄷ6말 ㄴ8, ㄱ6궁 ㄱ5,
- ㅅ6차 ㄱ6, 장훈

중세의 이름난 여성서예가들

조선봉건왕조시기 전반기에는 중세 우리 나라 서예발전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예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여성서예가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었는데 그 대표자들로서 신사임당, 허란설현, 황진이 등을 들 수 있다.

당대 시서화3절의 한사람으로 이름났던 신사임당(1504년-1551년)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글씨 역시 명필이었다.

신사임당의 글씨는 자유분방한 것이 특징인데 특히 초서(흘림글씨)를 잘 썼다. 그의 필적은 자획이 부드럽고 우아하여 여성적인 맛이 다분히 나타났다. 그는 평생에 많은 서예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흘러쓴 초서글 6폭과 단정하게 쓴 해서체(바른 글씨) 한폭뿐이다.

신사임당의 필법을 넷째아들인 리우가 이어받아 마침내 이름난 초서의 대가로 되었다.

허란설현(1563년-1589년)은 당시 이름난 학자였던 허엽의 딸로서 중세기 우리 나라의 가장 이름있는 녀류시인이었다.

당시 바느질이나 수예를 즐겨한 봉건시대의 여성들과는 달리 시 짓기를 더 좋아한 그는 허성, 허봉 등 형제들과 재능있는 시인이었던 리달에게서 시와 글을 배웠다.

허란설현은 26살의 짧은 인생기간에 적지 않은 글들과 함께 서예도 많이 창작하였다.

그가 봄비내리는 날의 한적한 생활을 읊은 7언절구가 있는데 초서체가 섞인 행서체의 글씨는 아담하고 부드러워 여성다운 필치가 완연하였다.

황진이(1516년-?) 역시 16세기전반기에 생존한 여성으로서 뛰어난 서예기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신분이 천한 기생이었지만 뛰어난 자질로 하여 송도3절의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대표적서예유산으로서는 박연폭포의 너럭바위에 휘갈겨쓴 14자의 한자련구를 들 수 있다.

흰 거품을 일쿠며 장쾌하게 떨어지는 폭포의 아름다움에 끌어오르는 시의 서정을 달랠길 없어 진이는 머리카를 붓삼아 바위우에 글을 썼다.

황진이가 쓴 이 초서글은 석공에 의하여 그대로 조각되었다.

굵고 가늘게 그어진 획들이 마치 살아움직이는 룡의 머리와 봉황의 꼬리가 휘감기는것만 같은 그의 필적은 박연폭포의 장관과 아름답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중세시기 우리 여성들은 봉건적인 구속속에서도 시와 그림뿐 아니라 글씨도 높은 수준에서 겸비함으로써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민족적감정과 정서가 짙은 우수한 서예형상을 창조하였다.

* * *



조선 불고기와 그 가공법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지 《금수강산》에 《민족의 향기》란을 처음 편집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30번째되는 이번 《민족의 향기》란에는 조선불고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고기는 불이 발견되던 아득한 태고적에 생겨난것으로 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으로 꼽히고있으며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조선 불고기는 고기에 마늘, 참기름을 기본으로 하는 양념감을 섞어 미리 재웠다가 불에 구워먹는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불고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불고기는 고구려의 《맥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맥적》의 《맥》은 고구려의 기본주민집단을, 《적》은 구이를 가리켰으므로 이것은 고구려의 불고기를 의미하는 말이였습니다.

고구려의 맥적을 두고 당시 중국의 여러 고전문헌들에는 《<적>이라는것은 고기를 찢어 꼬챙이에 꽂아서 불우에서 구운 것이다.》, 《<적>은 미리 조미하여 구웠으므로 구래어 장을 무쳐먹을 필요가 없다.》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조선사람들은 불고기를 고기와 다른 음식감을 양념에 재운 다음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는 방법으로 먹었으며 1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지금과 같이 적쇠우에 고기를 올려놓고 구워먹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옛 기록들에는 처음에는 짐승을 통채로 굽다가 점차 잘게 썬 고기를 꼬챙이에 꿰서 굽는 방법, 불우에 적쇠를 놓고 굽는 방법 그리고 양념장에 재웠다가 굽는 방법, 양념장을 직접 발라가면서 굽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불고기는 그 가공방법이 나날이 발전하여 조선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자기 위치를 당당히 차지하는 음식으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몇해전에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불고기재료로는 주로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를 비롯한 짐승고기들과 함께 낙지, 조개 등도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평양의 려명거리 종합상업구에 위치하고있는 금나락식당은 특색있는 불고기봉사로 하여 언제나 흥성입니다.

경리 최금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불고기를

고기종류와 부위에 따라 손님들의 구미에 맞는 고유한 가공방법을 찾아 봉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고기를 재울 때 리용하는 소금과 사탕가루의 비율, 재움시간은 충분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불고기는 재우는것뿐 아니라 고기를 굽는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속이 익기 전에 겉만 타므로 불의 세기를 낮추어 속까지 익도록 하여야 불고기의 고유한 색이 나타나고 맛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식초와 겨자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새콤하고 향기로운 맛을 내게 만든 겨자장, 기호에 맞게 곁들여내는 오이, 참나물, 감자편, 마늘, 고추장 등도 불고기와 잘 어울려 손님들의 구미를 한껏 돋구어줍니다.

동포여러분, 조국에 오시는 기회에 우리 식당에도 들러 조선불고기의 진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누구든 그 냄새 한번 맡으면 그저 스쳐지나치지 못하고 한번 맛을 보면 또다시 맛보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되는 조선불고기는 조국방문나날에 아름다운 추억의 한페이지를 장식해줄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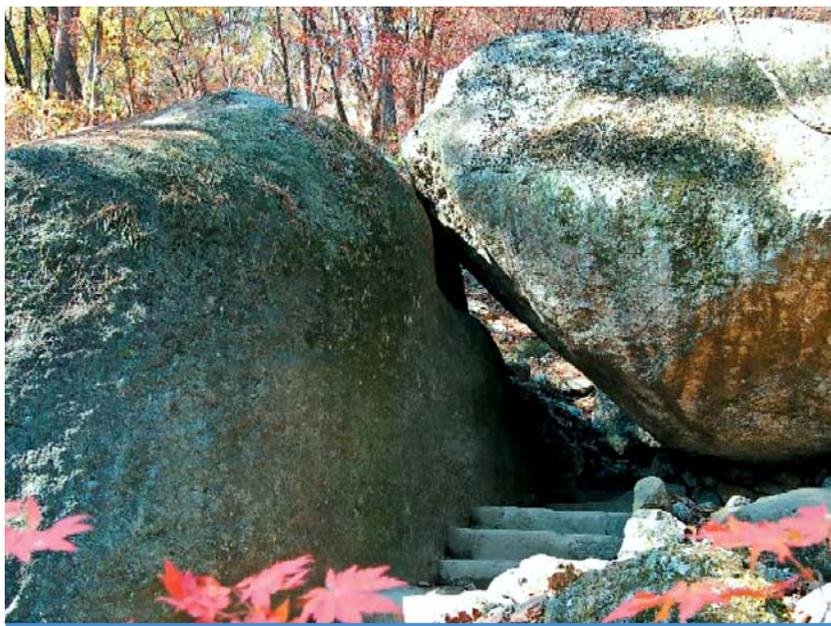
묘향산

- 상원동 -

상원동은 묘향산의 법왕봉과 오선봉 남쪽비탈면에 이루어진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종턱 높이가 500여m되는 곳에 옛 절인 상원암이 자리 잡고 있어 상원동 또는 상원골로도 불리운다.



가을의 상원동



금강문

금강문은 직경이 약 10m 이상 되는 큰 바위가 산에서 자연적으로 굴러내려와 다른 바위와 마주대어 생긴 돌짜이다. 그사이로는 사람 한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신통히도 동굴같은 이 금강문에는 먼 옛날 묘향산구경을 온 랑반과 지주들이 하는수없이 갓쓴 머리를 숙이고 기어나가곤 하였다는 등산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있다.

묘향산은 산과 물, 바위와 동식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채색미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지닌 명산이다. 그가운데서도 상원동과 만폭동, 향비로봉은 류달리 뛰어난 경치로 하여 묘향산에서도 가장 풍치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상원동은 울창한 수림과 큰 바위들사이로 쏟아지는 폭포들과 푸른 담소들 그리고 인호대와 법왕봉처럼 전망이 좋은 기암들과 봉우리들 또한 경치좋은 곳들에 자리잡고있는 상원암, 능인암, 불영대, 축성전을 비롯한 옛 건물들로 하여 묘향

산에서도 풍치가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밀도가 조밀한 세계적인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기암 인호대와 옛 건물 상원암, 3개의 큰 폭포들이 잘 어울려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상원암 일대의 뛰어난 절경은 묘향산의 손꼽히는 경치들중의 하나이다.

상원동에는 금강폭포, 대하폭포, 룡연폭포, 산주폭포, 천신폭포 그리고 인호대, 룡각석 등 기암들이 있다.

금강폭포는 볼수록 아름답고 황홀한 폭포라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특징은 흔히 보

는 폭포처럼 물줄기가 수직벼랑으로 공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탈진 바위등을 미끄러져 내리는 누운폭포로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하폭포는 그우에 있는 룡연폭포와 산주폭포의 물이 합쳐져 흘러내려오다가 계단모양의 바위벼랑으로 떨어지는 폭포이다.

이 폭포에서 산굽이를 돌아 500m정도 가면 룡연폭포와 산주폭포가 있다.

폭포의 옷부분에 신기한 룡소가 있다 하여 룡연폭포라 불리우는 이 폭포는 묘향산의 폭포들가운데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



금강폭포

답기로 손꼽히며 누운폭포로서 이체를 띠고있다. 높이 84m, 물이 흐르는 길이 105m인 이 폭포는 룡소에 찾다가 다시 넘어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데 폭포수는 마치 룡이 꿈틀거리며 오르는것 같기도 하고 흰 비단필을 드리운것같기도 하다.

층암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구슬같은 맑은 물방울을 수없이 날리며 장쾌한 소리를 내는 산주폭포도 묘향산의 폭포들가운데서 아름답고 웅장

한 폭포로 일러오고있다.

룡연폭포를 지나면 상원암의 맞은쪽에 우뚝 솟은 기암인 인호대를 볼수 있다. 인호대라는 지명은 옛날 상원암으로 오르려던 길손들이 룡연폭포의 옆에 이루어진 절벽앞에서 그만 갈길을 못찾아 헤매이고있을 때 큰 호랑이가 열어준 길을 따라 인호대와 상원암으로 오르게 되었다는 전설로부터 그렇게 불리운다고 한다.

인호대에 올라 굽어보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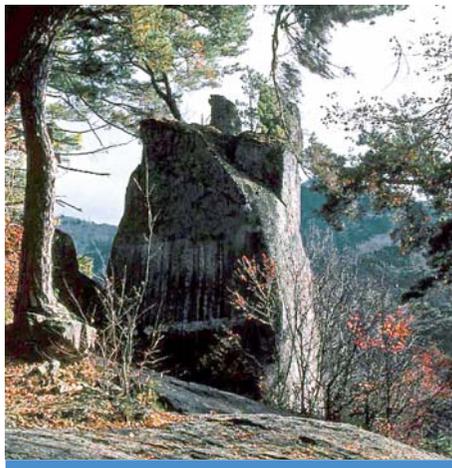


여름(우)과 겨울(아래)의 룡연폭포(왼쪽)와 산주폭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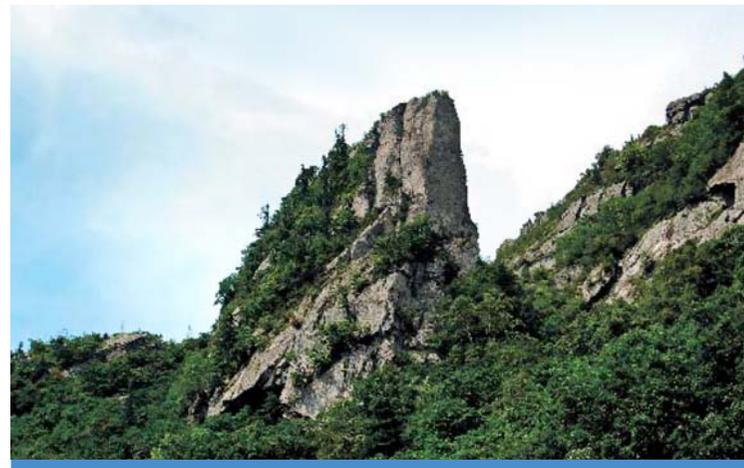


서리꽃 핀 법왕봉

상원동에 있는 기암들의 일부



룡각석



투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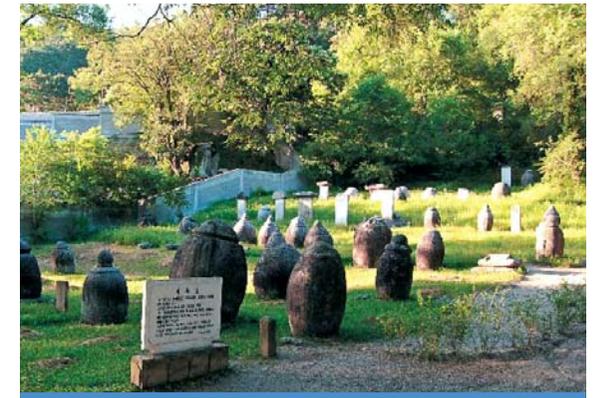
상원동에 있는 력사유적들의 일부



상원암



축성전



서부도

원동의 경치가 하도 절묘하여 낮에는 선녀들이 내리고 밤에는 돌아갈것조차 잊은 선녀들을 찾아내려온 다섯신선들마저 황홀경에 취하여 그대로 굳어졌다는 오선봉, 선녀들의 명주날개 옷을 도맡아 보장하였다는 누에머리처럼 생긴 잠두봉을 비롯하여 묘향산의 련봉들과 계곡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런가 하면 인호대에서는 산주폭포와 룡연폭포, 천신폭포와 묘향산 보현사에 속한 절간건물인 상원암도 볼수 있다.

이처럼 한곳의 높은 바위우

에서 3개의 폭포를 동시에 부감할수 있는 경치는 찾아보기 힘든 절경이라고 한다. 하기에 옛적부터 인호대에서의 폭포구경을 인호관폭이라고 하며 묘향산 8경의 하나로 널리 자랑하였다. 상원동에서 이름난 봉우리는 법왕봉이다.

법왕봉은 동쪽으로 오선봉, 서쪽으로 관음봉과 잇닿아있는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절간인 능인암에서 이 법왕봉을 바라보면 마치

바위병풍을 둘러세운듯하다. 그리고 바위들은 거인이 무쇠주먹을 추켜들고 우뚝 서있는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먹이를 노리는 힘상국은 괴물, 달리는 사슴이나 날아가는 학모양갈기도 하다.

하여 천태만상을 이룬 이 법왕봉의 바위생김을 가리켜 사람들은 묘향산의 만물상이라고도 일러왔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공유일

8형제총각과 8선녀

옛날 하늘의 8선녀가 묘향산 만폭동 유선폭포의 팔담에 내려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물놀이도 하였다고 한다. 만폭동어귀에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사이 좋게 사는 8형제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8선녀가 팔담에서 물놀이를 하고있는데 난데없이 한쌍의 범이 나타나 그들을 해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만폭동골안으로 오르던 8형제총각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목숨을 내대고 범과 싸워 8선녀를 구원하였다. 그후 8형제총각은 8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물놀이를 할 때면 늘 그들을 지켜주곤 하였다. 선녀들은 총각들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혜에 사의를 표하였다. 어느해 가을 한번은 8선녀가 또 만폭동에 내려와 놀다가 돌아갈 저녁이 되었는데 막내선녀가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앓기 시작하였다. 선녀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8형제총각은 막내선녀를 잘 간호해줄테니 마음놓고 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날 선녀들은 막내선녀를 8형제총각에게 맡기고 떠났다. 8형제총각은 그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병을 고친 막내선녀는 8형제총각의 동자를 맡아해주었다. 며칠후 다시 만폭동으로 내려온 언니선녀들은 완쾌된 막내선녀와 만났고 총각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고마움에 다시 사의를 표하였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8선녀로부터 8형제총각의 착하고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되어 그들이 서로 짝을 못도록 해주었다. 옥황상제는 8선녀에게 갖가지 비단과 금은보화들을 가득 실은 여덟필의 누런 하늘황소를 주어 만폭동에 내려보내었다. 그때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만폭동어귀에는 여덟채의 기와집이 솟아났고 8형제총각과 8선녀는 차례로 짝을 못고 집들을 하나씩 차지하였다. 그들은 누런 황소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의종게 아들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 *

상식

갈산온천유적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병치료와 장수에 특효가 있는 온천을 적극 리용하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옛 문헌들에는 선조들이 온천의 약리적효과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병치료에 리용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강원도 판교군에 있는 갈산온천료양소부근에서 발견된 갈산온천유적이다. 갈산온천은 단순라돈천이며 예로부터 피부병, 신경통, 만성위염, 관절염 등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높은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갈산온천유적은 실내욕탕유적으로서 욕탕건물터와 그안에 설치된 4개의 수조로 이루어졌다. 건물에는 화강석을 다듬어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욕탕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씩 대칭으로 설치되어있다. 수조들은 길쭉한 화강석의 옷면을 반원형으로 파내어 만든 수로와 연결되어 온천물을 공급받게 되어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바닥전면에 화강석판돌이 깔려있다. 욕탕건물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용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흐름식으로 수조에 흘러들게 되어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유적은 조선봉건왕조 4대왕이었던 세종에 의하여 건설된것으로 볼수 있다. 력사문헌들에는 세종이 이곳에 온천욕실과 행궁을 건설하도록 하고 직접 와서 온천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 이 유적에서 동북쪽으로 수십m 떨어진 곳에 당시 건설되었던 행궁터자리도 남아있다.

* * *

조선특산

강서약수

국가지정천연기념물 제56호

주요이온함량

Ca ²⁺	...	112mg
Mg ²⁺	...	54mg
Na ⁺	...	1.38mg
SO ₄ ²⁻	...	10.5mg
SiO ₂ ²⁻	...	10.5mg
HCO ₃ ⁻	...	563.5mg
K ⁺	...	0.12mg
Cl ⁻	...	10.5mg

여러가지 병치료에

특효

임신부, 산모들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발육에 좋은

생명수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